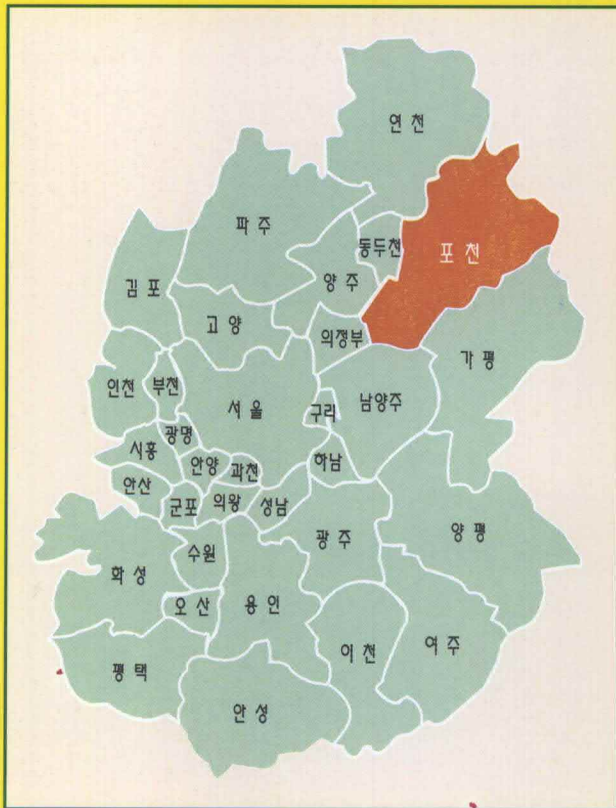


# 포천군

포천의 민요

포천메나리





# 포천의 민요

## 1. 전승지

포천군 일원

## 2. 유래 및 해설

포천군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백운산, 국망봉, 운악산, 주금산 서쪽으

로는 종현산, 지장산, 왕방산, 해룡산이 있고 남으로는 용암산, 북으로는 광덕산과 명성산인 산악지대로 되어있다.

인근에는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가평군과 북으로는 철원군, 화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축석령을 분수령으로 포천을 관류하는 한천과 영평천 유역에 걸쳐진 경지지역으로 가산뜰, 영평뜰, 자일리뜰 등 산악과 농경지가 고루 갖추



어진 곳이다.

포천의 민요는 포천지역에서 부녀자들이 아기를 기르며 부르는 노래이다. 어린이들의 노래, 성인이 되어 부르는 노래, 시집살이 노래, 상여소리 등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집이나 일터에서 많이 불리워졌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기계화로 거의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타계하여 잊혀져가고 있고 극히 일부 부락에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민요의 발굴과 보존계승은 전통문화 창달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므로 전 인천예총지회장 김순제 교수에게 민요의 음악적 분석등 고증을 받아 연출하였으며, 포천 실업고등학교를 포천군 민속놀이 전수학교로 지정, 가산면 거주 기능보유자들로 부터 채집하여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민요는 구전동요를 위시하여 부녀요, 징요, 한탄가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농요가 대중을 이룬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포천은 넓은 농토가 여러산맥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타지방에 비하여 많은 논노래와 산노래가 공존하였다.

그러나 기계문명의 발달로 그 노래들이 날로 소멸되어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기에 본군에서는 뜻있는 사회인사, 교육기관 그리고 전문학자들과 합심하여 이의 계승발전에 정렬을 쏟았다.

### 3. 구성 및 줄거리

이번 행사에는 노래의 갈래별로 발표하는 것보다 삶의 성장순에 따라 소개하는 것이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택하였다.

출생 → 소년기 → 청년기 → 장년기 → 사망

#### 1) 출 생(소아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여러가지 소리에 접하나 짜임새 있는 노래를 듣게되는 것은 어머니나 할머니의 자장가 또는 어른들의 어르는 소리일 것이다.

※형식적인 입장을 지향하고 자장가로 연회가 시작된다.

(1)자장가

(2)부락부락

#### 2) 소년기

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동물요라 하겠다. 그중 주로 많이 불려온 “까치야 까치야” “방아깨비” “잠자리 동동”을 택하였다.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연달아 부른다.

(1) 까치야 까치야

(2) 방아깨비

(3) 잠자리 동동

#### 3) 청년기

청년들은 일거리가 많았기에 노래 역시 많았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풀베기 소리를 택하였다. 5~6명의 목동들이 산에 오를때 작대기로 지개다리를 두들기는가 하면 호드기를 불며 부르는 노래는 가히 일품이라 하겠으며, 이어서 풀을 지게에 잔뜩지고 비탈진 산길을 내려오며 부르는 소리는 한이 담백

담겨있어 애처럽기 짝이 없다.

한편 상겨리로 밭을 가는 장년기의 “소모리 소리”는 흥겨운 속에 구성지기도 하다.

- (1) 입산노래
- (2) 소몰이 노래
- (3) 하산노래(목동요)
- (4) 소몰이 소리

#### 4) 장년기

##### (1) 붙이기

갈아 엮은 밭을 쇠스랑으로 정지하면 바로 그 뒤를 따르며 한발로 밭자국을 내어 그 위에 씨를 뿌리고 또 한발로 흙을 덮어 나가며 부르는 노래다. 집단의 노래 이기에 메기고 받는다.

##### (2) 농악놀이

밭에서 곡식을 심고 쇠스랑 정지를 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풍악에 맞추어 한마당 흥겹게 놀며 피로를 푼다.

##### (3) 짝짓기(밭에나리)

밭에서 김을 매며 부르는 노래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매우 보기드문 노래이다.

- 음계구성 : 독일의 3음계와 꼭 같은 단3도+장2도  
Mi. Sol. La La. Do. Re 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음계구성을 하고 있다.
- 선율 : 단조롭고 속도도 느리기에 장식음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하행선의 가락이다.
- 창법 : 집단의 노래는 흔히 한사람이 메기고 여러사람이 받으며 메기는 소리는

가락도 길고 사설도 곁드리고 있고 받는 소리는 단지 힘내기로 일손을 맞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두패로 나누어 주고 받으며 메기기와 받기를 같은 가락으로 노래한다.

- 교창방법 : 되풀이받기와 이어받기가 있다.

#### 메기기 받는소리

##### 1. 매어주소 매어주소

매어주소 매어주소(되풀이 받기)

##### 2. 이 밭이렁 매기전에

접심참이 나온다네(이어받기)

#### (4) 시집살이(새잠)

옛날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가락 또한 애달프다

형님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땀디까  
아구애아 말마어라 명주치마 열두폭이  
눈물꽃물 다졌었네 고추당초 맵다한들  
시집살이만 하물소냐 애고담담 내신세야  
이를어이 하잔말가 먹을것이 하두없어  
푹보리를 훑어다가 가마솥에 들들볶아  
절구에다 집어넣고 툭툭찌어 밥을한들  
시부모님 대접하고 시동생과 시누이를  
주고나니 나먹을것 하나없네 밥솥에다  
물을붓고 휘휘들어 먹고나니 한심하기  
짝이없고 불쌍한것 인생이라 이런세월  
지나가고 좋은세월 돌아오면 눈치코치  
않이보고 마음데로 먹고살날 언제언제  
오려느냐

#### (5) 상여소리

이제 삶의 마감이 왔다.

행상소리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빠른 속도로 퇴장한다.

## 4. 발굴 및 채보정리

### 1) 채보 및 고증

- 김순제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인천직할시지회장

### 2) 연출 및 구성

- 이영재 : 포천군민속놀이보존회 회장
- 정만규 : 포천군 문화공보실
- 엄규식 :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 신은아 : 포천실업고등학교 지도교사

### 3) 참 여

- 최종규 : 포천문화원장
- 김봉길 : 포천군민속놀이보존회 고문
- 원육희 : 포천군 문화공보실장
- 이용주 : 포천실업고등학교



# 포천메나리

## 1. 전승지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 2. 유래 및 해설

우리나라 민요의 대종을 이루는 노동요는 일의 성격, 일터의 환경,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르게 불려지는데 포천은 산과 물이 고르게 펼쳐져 있어서 여러 종류의 노동요가 전해오고 있다.

특히 포천은 논일과 밭일에 대한 노동요가 많이 전해오며 그 질도 우수한 것이 많다. 그 중에도 논맬 때 불려지는 “메나리”는 포천지역에서 많이 불려졌는데 힘차면서 구성진 가락이 멋있고 가락의 내용도 매우 건전하데다가 창법이 독특하다. 다른 지방에서



는 메기고 받는 식으로 불려지는 것이 보통인데 메나리는 다섯조로 편성되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부름으로써 한소리를 완성시키는 점에서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이 있다.

메나리는 설참이나 일을 끝내고 놀이를 할 때도 다른 노래와 함께 불려졌는데 이 때에도 가장 중심이 되었다. 이번 민속 예술제에 출품을 위하여 농사일의 과정에 따라 “씨래질 소리(소몰이)”, “모내기 소리(열소리)”, “애벌논매기 소리(방아타령, 담쌓는 소리, 새쫓는 소리)”, “두벌논매기 소리(메나리)” 등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노래들의 중심이 “메나리”이기 때문에 “포천메나리”로 이름 붙였다.

“포천메나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때에 농사일의 힘든 과정 중 고되고 지루함을 잊고, 협동심을 자아내는 능률을 올리기 위해 불려지던 농요 중 논매기 노래의 일종이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해도 일터에서 많이 불려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농약살포 및 기계화로 거의 소멸된 실정이다.

거기다가 기능 보유층인 노인들이 타계하여 잊혀져가고 있고 극히 일부 부락에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요는 민요의 중심을 이룰뿐 아니라 가락과 가사가 건전하여 전통문화의 진수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농요의 발굴 보존과 계승은 전통문화 창달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김순제 교수의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노동요의 음악적 분석에 대한 논문과 정동화 교수의 집필로 포천군지에 게재된 노동요 자료를 받아 비교적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고 있는 가산면 금현리 외 7개 부락에서 여덟곡을 채집 구성하게 되었다.

### 3. 구성 및 줄거리

입장 소몰이(씨래질) 모심기 김매기(애벌매기, 담쌓기, 새쫓기)

새참(농악놀이) - 농악 김매기(두벌매기: 메나리) 퇴장

#### 자진아리

일락서산 해떨이 진다

어서가세 바베가자

#### 1) 논갈이(소몰이)

밭이나 논을 갈 때 쟁기 한개에 소 한마리(외거리) 또는 두마리(쌍겨리)를 쓴다.

쌍겨리로 일할 때 부르는 소리를 “긴아리”, 외거리 때는 “자진아리”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통틀어 “소몰이”라고도 한다.

본래 소몰이는 산간지대에서 밭갈이 할 때 부르는 소리이나 포천과 같이 산과 들이 고르게 있는 곳에서는 논갈이나 씨래질 할 때도 불리워지고 있다. 평야지대에서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한쪽에서 논을 갈고, 씨래질을 하며 또 다른 쪽에서는 모를 찌고 있다.

이랴 이소 어서 가자 힘들지만 어떡허니

어디 어디 어디로만 슬슬가세 워워 워이 더차

이랴 이소 슬슬만 돌아 가세

안락서산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바베 가자

지나가는 행인들도 길 멈추고 구경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논베미 마저 갈고

집에 가서 너도 쉬고 나도 쉬자.

#### 2) 모심기(열소리)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하나 하나” 또는 “꽃앗네” 소리를 부르는데 일 고장에서는 하



나에서 열까지 부르며 사이 사이에 사설적인 노랫말을 삽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의 모습을 모심기 노래에 맞추어 일열로 서서 모를 내도록 하였다.

여기 저기 심어도 사방에 즐모로 심어라  
 하나나 하나, 하나나 들, 들이나 셋, 셋이로구나  
 넷.

네이나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하나 하나 하나나 들, 들이나 셋, 셋이로구나 넷.  
 네이나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여기 저기 심어도 삼배출 자리로 심었네.  
 하나나 하나, 하나나 들, 들이나 셋, 셋이로구나  
 넷.

네이나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여기 저기 심어도 잘 된 자리로 심었네.  
 하나나 하나, 하나나 들, 들이나 셋, 셋이로구나  
 넷.  
 네이나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열.

### 모심는 소리(하나 하나)

여기 저기 심어도 사방에 즐모로 심어라  
 하나나 하나, 하나나 들, 들이나 셋, 셋이나 넷이  
 네이나 다섯  
 하나 하나 하나나 들  
 들이라 셋 셋이로구나 넷  
 넷이라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 3) 방아타령(애벌메기)

메기는 소리: 에 - 이 - 여 라 - 방아요.

받는 소리: 에 - 이 - 여 라 - 방아요.

메기는 소리: 즐기치게 쪼는 방아

받는 소리: 에 - 이 - 여 라 - 방아요.

메기는 소리: 산에 올라 수진방아

받는 소리: 에 - 이 - 여 라 - 방아요.

메기는 소리: 들어나려 도들방아

받는 소리: 에 - 이 - 여 라 - 방아요.

메기는 소리: 돌고돌아 연자방아

받는 소리: 에 - 이 - 여 라 - 방아요.

메기는 소리: 쪼기 좋은 나룻방아

받는 소리: 에 - 이 - 여 라 - 방아요.

### 방아타령

즐기치게 쪼는 방아 에이어라 방아요.

산에 올라 수진방아

우이야 훨 훨 <메기는 소리는 자진방아타령과 같다>

### 4) 김매기 소리

애벌논매기는 농사일 중 제일 힘든 과정으로서 시름을 달래기 위해 부르던 노래이다.

여기에서는 논에 나는 잠풀을 호미로 파 업는 과장으로 논에서 농부들이 농요(방아타령)에 맞추어 호미로 논을 매는 모습과 농부들이 힘들어 허리를 펴고 등을 두드리며 잠시 쉬는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논매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벼이삭은 패지 않았으나 농사가 잘 되라는 뜻에서 새쫓기 노래를 부르며 맨마지막 소절에는 “우”하며 우렁차게 새쫓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새쫓기 소리는 한 논배미의 일이 끝나고 논 밖으로 나오기 전에 장래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둥글게 원형으로 서서 새쫓는 흉내를 내며 부르는 소리이다.

### 새쫓기

메기는 소리

우이야 훨훨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말잘하는 앵무새며  
 춤잘추는 학두루미  
 몸체 좋은 공작새야

받는소리

우이야 훨훨  
 우이야 훨훨  
 우이야 훨훨  
 우이야 훨훨  
 우이야 훨훨  
 우이야 훨훨  
 우이야 훨훨  
 우이야 훨훨

### 메나리(두벌매기)

두벌논매기는 키가 큰 풀과 피를 뽑는 것으로 애벌매기와는 달리 호미 없이 손으로 풀이나 피를 뽑는 과정이며 이 고장에서 논을 맬 때 부르는 노래의 종류는 방아타령과 메나리 등 다양하다.

“메나리”야말로 이 고장의 특색있는 소리이다. 그 창법이 독특한 점은 앞에서 논한 바 있으나 좀 더 상세히 설명코자 한다.

메나리는 농군이 5개조로 나뉘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부름으로써 1개의 소리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그 분담 역할은 “메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 “받는소리” “내는소리” “맺는소리”로 구분되며, 그 형식도 아래와 같이 메기는 소리를 되풀이 받는 형식과 메기는 소리를 이어 짝을 채우는 2가지 형식으로서 이는 다른 지방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우리 고장에는 이번에 불리워지는 논메

나리 외에 밭메나리도 있는데, 창법은 서로 같으니 음계 구성에 있어 논메나리는 완전4도 장 2도를 바탕삼고, 밭메나리는 완전4도, 단3도를 바탕삼고 있는 것이 더욱 흥미롭다.

### ■ 포천 메나리 전수 현황

메 나 리	기능보유자	노 래 전 수
메기는소리	김소정	배상남, 김상윤
지르는소리	김봉길	이상희, 이성애, 이소연, 최은진 신영미, 양장숙
받는소리	유태군	오현주, 박호정, 김경민, 김채임 김은숙, 우현애, 서광숙
내는소리	이상주	이순성, 성은주, 양선희, 정주희 유금용
맺는소리	박일용	김동환, 최장순, 박상미, 이윤미 성연숙, 김기석, 윤세근

### 포천 메나리(논 메나리)

메기는 소리

에이헤이요 이논 배미  
 에이헤이요 일천 가지  
 에이헤이요 일천 가지  
 물세가좋아

벌려셨네

벌려서면

지르는 소리

에헤에이

” ” ” ”

” ” ” ”

받는 소리

이논 배미

일천 가지

삼천 가지

물세

벌려

숫아  
 좋아  
 섰네  
 났네

되풀이받기

메기는 소리:이논배미 물세 좋아  
 지르는 소리:에이 에이  
 받는 소리:이논배미  
 내는 소리:물세  
 맺는 소리:좋아

메기는 소리:일천가지 벌려 섰네  
 지르는 소리:에이 에이  
 받는 소리:일천가지  
 내는 소리:벌려  
 맺는 소리:섰네

이어받기

메기는 소리:일천가지 벌려 서면  
 지르는 소리:에이 에이  
 받는 소리:삼천식이  
 내는 소리:숫아  
 맺는 소리:났네

메기는 소리:삼천식이 숫아 나면  
 지르는 소리:에이 에이  
 받는 소리:부모봉양  
 내는 소리:하여  
 맺는 소리:보세

이어받기

메기는 소리:부모봉양 하신 다음  
 지르는 소리:에이 에이  
 받는 소리:처자건사  
 내는 소리:하여  
 맺는 소리:보세

메기는 소리:처자건사 하신 다음

지르는 소리:에이 에이  
 받는 소리:친구잡대  
 내는 소리:하여  
 맺는 소리:보세

메기는 소리:친구잡대 하신 다음  
 지르는 소리:에이 에이  
 받는 소리:나라구제  
 내는 소리:하여  
 맺는 소리:보세

#### 4. 특 징

포천메나리는 인천직할시 문화재위원 김순제(전 인천교대 교수)가 전국을 대상으로 노동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982년 본군을 내방 조사 하였다.

포천메나리는 여러 노동요 중 두벌논맬 때 부르던 노동요로 전국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일노래는 메기고, 받고 하는 등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포천메나리는 메기고, 지르고, 받고, 내고, 맺는 등 5단계로 구성되었다.

포천군에서는 이 특색있는 노동요를 계승하기 위하여 정동화, 김순제 등 전문인을 초청하여 고증, 연출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포천실업고등학교가 1987년도에 전통민속놀이 진수학교로 지정되어 농악 및 노동요만을 구성하여 매주 3~4회씩 연습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이용, 농요보유자를 초청하여 전수받고 있다.

본 출연단은 전수학교인 포천실업고등학교 재학생 50명(남:24, 여:26)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출연 학생 모두가 기능보유자인 가산민속놀이보존회로부터 포천 고유의 농악과 노동요를 전수받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포천실업고등학교는 전수받은 졸업생이 중심이 된 단체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전통문화의 저변확대와 계승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5. 출연자명단

- 명 칭: 포천메나리
- 종 목: 민요
- 소요시간: 20분
- 출연인원: 50명(남:24명, 여:26명)

배역	성명
메나리	배상남, 이상희, 오현숙, 이순성, 김동환 이성애, 이소연, 최은진, 신영미, 양성숙 박호정, 김경민, 김채임, 김은숙, 우현애 정주희, 성은주, 양선희, 최창순, 박상미 이윤미, 정연숙, 김기석
방아타령	서광숙
12발	김재덕
12발	박인호
상식	이효창
부식	김계화
장고	양선화, 김성운
북	김임중, 김창숙
징	이주형, 양희성
호적	김명환, 김영애
기	김호배, 왕중원
소몰이	이장희
소	강석천, 조윤기
모지계	박광명, 유금용, 윤세근, 윤세형
세참	원영배, 권만석, 나추왕, 연중모
셋님	유호석

## ■ 전수지도자명단(가산민속놀이 보존회)

성명	전수지도
김봉길	호적, 메나리
이영제	소몰이 노래, 방아타령, 메나리, 연술
윤동순	모심기 노래, 메나리
김소정	메나리
유대균	메나리
이상주	메나리
박일용	메나리, 징
한기동	팽과리
이종상	장고
이민식	북